

6세기 신라 『관정경』 전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 of 6th Century Shilla to Abhseka Sutra

저자 (Authors)	이경란 Lee, Kyong-ran
출처 (Source)	신라문화 55 , 2020.2, 75-101 (27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5 , 2020.2, 75-101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593
APA Style	이경란 (2020). 6세기 신라 『관정경』 전래에 관한 고찰. 신라문화, 55, 75-10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01 13: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6세기 신라 『관정경』 전래에 관한 고찰

이경란*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치국책으로 살펴본 전래시기 |
| II. 『관정경』의 개요 | V. 맺음말 |
| III. 유학승의 교류로 살펴본 전래시기 | |

■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의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관정경』이 어느 시기에 전래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동진에 건너온 서역 승인 백시리밀다라에 의해 한역된 『관정경』은 신불 보호 아래 개인의 기복은 물론, 국토 수호, 국토확장, 왕권 강화와 같은 신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의 경전이다. 지금까지 명량이 행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진흥왕은 법흥왕에 이어 사신 공양을 한 대표적인 호불 군주이다. 그만큼 진흥왕대에 펼쳐진 일련의 불교 치국책은 개인의 불교관에 기인하여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관정경』에서 설하고 있는 신불의 국토수호, 과거칠불, 전륜성왕 사상은 대단히 환영받을 수 있는 복합사상이었다. 때문에 『관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의가 신라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부분이다. 진흥왕은 단지 그것을 정책에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전륜성왕 사상과 같이 교리의 인물과 동일시하고 가섭불의 연좌석을 매개로 불국토의 신라 설정과 신라 왕실을 찰제리종과 연관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성격의 『관정경』을 수용하고 있다. 6세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이 팽배해있을 때이며 왕권이 완전히 부족 세력에서 우위를 점한 시기도 아니었다. 따라서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의 성격이 비록 유교적 왕도정치를 표방하였다 할

* 부경대 사학과 박사수료

지라도 그 내면은 불교의 이상 군주이며 강한 제왕인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또한 『관정경』은 신라 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은 토착 사상을 부처의 위신력이 미치는 범주 안으로 편입하게 하는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진흥왕이 펼친 불교의 정책이 각각 소의 경전이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관정경』만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정경』은 선덕왕대의 명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6세기 진흥왕대에 승려와 사신의 교류를 통해 전해 내려오고 수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관정경, 진흥왕, 신라불교정책, 과거칠불사상, 전륜성왕, 문두루법

I. 머리말

6~7세기는 신라 불교사에 있어 초기 불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교학 불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법흥왕부터 진흥왕, 진평왕, 선덕왕을 거쳐 불교는 국왕의 개인적인 불교관과 함께 진호국가 개념으로 신라 사회에 수용되었다. 불교 수용은 중고기 신라 고유 신앙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융합을 거쳐 안착하는 동안 국왕의 불교관이 크게 작용하였다.

국왕의 불교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즉 거칠부와 같은 왕족의 영향이라든가 외국 사신의 영향, 초기 유학승 등의 경전 수입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의 국내외 정세, 고유 종교와 귀족들과의 관계, 고구려·백제와의 전투에서 야기되는 갈등 해법에 도움이 되는 경전류가 국왕의 불교관에 영향을 끼쳤다. 그중에서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명랑법사가 행했다고 하는 문두루법은 전쟁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두루법은 신라의 호국 혹은 진호불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두루법의 출처가 되는 『관정경』은 비록 『호국삼부경』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호국적인 이미지가 강한 경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명랑법사가 시행한 문두루법은 실제 『관정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문두루법 시행에 의한 호국의 성격은 일부분이며, 오히려 개인의 불교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기 신라불교의 초석을 마련한 진흥왕의 불교관을 알 수 있는 사리탑신앙, 과

거칠불 사상, 전륜성왕 사상, 약사 신앙 등이 대거 『관정경』에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명랑법사가 실행하기 이전부터 『관정경』은 이미 신라에 전해 내려와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기에 관정경의 수입이 이루어졌는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진흥왕대 불교에 관한 기사와 진흥왕의 행적을 『관정경』의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관정경』에 관한 선행연구는 신라초기 불교사에서 밀교의 역할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파악한 성과들이다. 『삼국유사』의 <신주>편에 보이는 밀본, 명랑, 자장의 행적을 통해 그들의 행적이 『관정경』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¹⁾ 대체로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신라밀교 안에서 『관정경』의 관련 여부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²⁾ 본고에서는 『관정경』의 내용 자체에 역점을 두면서 진흥왕대에 『관정경』의 수입 여부를 그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교류내용과 그가 펼친 불교 치국책을 살펴봄으로써 전래시기를 6세기 진흥왕대로 소급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관정경』의 개요

『관정경(灌頂經)』은 동진(317~420) 시대 원제(元帝, 317~322) 때인 천축삼장 백시리밀다라(帛尸梨密多羅, Śrīmītra)에 의해 한역된 경전이다. 『대관정신주경(大灌頂神呪經)』 혹은 『대관정경』이라고도 한다. 12 소경 문장 말미에 모두 ‘관정(灌頂)’이라는 문자가 있어 관정경이라 칭한다. 『관정경』의 내용 중에는 도교 사상과 육조시대에 유행했던 민간신앙 요소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고, 번역 사적 또한 분명하지 않아 양나라 이전에 위작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이다.³⁾ 위경 여부야 어쨌든 이 경이 찬술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신들의 보호에 의한 기복과 구병 등 안정적인 삶의 요구가 간절하

1)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밀교』, 『역사와 현실』 63, 2007.

2) 『관정경』이 언급되는 신라밀교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저들이 있다. 박태화, 『新羅時代의 密教傳來考』,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1965; 홍윤식, 『三國遺事와 密教』, 『東國史學』 14, 1980; 하정룡, 『『삼국유사』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本』, 『회당학보』 7, 2002; 서운길, 『신라 현신성불(現身成佛)의 밀교적 영향』, 『불교학보』 42, 2005; 장익, 『밀교에서의 대승불교사상 수용』, 『불교학보』 38, 2001; 김연민, 『密本の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5, 2012; 서운길, 『명랑법사와신인중』, 『한국밀교사상사』, 2006; 문명대, 『新羅神印宗의 研究』, 『震檀學報』 41, 1976; 장지훈, 『新羅佛敎의 密敎적 性格』, 『先史와 古代』 16, 2001; 고익진,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3) 松長有慶, 장익 역, 『밀교경전 성립사론』, 불광출판부, 1993, p.142.

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진의 불교 풍조는 현학적이면서도 도교가 가미된 신이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남북조 시대 신이승(神異僧) 대다수가 북조에서 활동한 반면 남조 동진에 등장한 서역승이 있으니, 그가 백시리밀다라이다. 백(帛)은 황제의 성(姓)으로 그는 구자 국왕의 적자로 태어났지만, 왕위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출가하였다. 영가(永嘉)년(307~316)에 낙양으로 왔으나 영가의 난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와 오나라의 건초사(建初寺)에 주석하며 귀족들 사이에 존숭을 받았다. 당시 남쪽에는 주법(밀교)이 없었는데, 백시리밀다라가 동진에 들어와 남조 불교계에 처음으로 밀교를 전하고 80여 세로 죽기까지 주술에 능하고 주문을 잘 외워 응험(應驗)이 많았다고 한다.⁴⁾ 그가 『대공작왕신주(大孔雀王神呪)』 1권과 『공작왕잡신주(孔雀王雜神呪)』 1권을 합한 『공작왕신주경(孔雀王神呪經)』⁵⁾을 한역함으로써 주술적인 불교가 동진에도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그가 신법과 관계있는 경전을 번역하고 신이성과 주문에 능통하여 동진에 그러한 주술성이 사회 저변에 확산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징이 샤먼적 주술과 습합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동진시대 호국경전의 하나인 『금광명경』을 번역한 담무참(曇無讖, 385~433)은 『열반경』, 『대집경』 등 20여부를 남조에 소개한 뛰어난 현교승이다. 그의 박학다식함은 구마라습에 비할 정도이고, 귀신을 부려 병자를 고치는 그 신이함은 불도징에 필적할 만하다고 기록되었다.⁷⁾ 이처럼 동진시대는 밀교승 뿐만 아니라 현교승 또한 신이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난을 겪은 이후라는 시기성과 중국에서 발판을 굳혀야 하는 서역승들의 방편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동진의 불교 배경 하에서 『관정경』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삼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정경』은 12권의 소경⁸⁾으로 이루어졌지만 연구에서 다루지는 경은 대체로 제7

4) 鎌田茂雄, 정수일 역, 『中國佛敎史』, 경서원, 1984, pp.75~76.

5) 梁 僧祐撰, 『出三藏記集』 2, “右二部二卷 晋元皇帝時 西域高座沙門 尸梨密所出”

6) 宋 贊寧撰, 『大宋僧史略』 卷上 傳密藏(大正藏54, p.240下), 『梁高僧傳』 1, 『帛尸梨密多羅傳』(大正藏50, p.328上), 『공작왕신주경』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7) 『梁傳』 2, 『담무참전』.

8) 12소경은 『불설관정칠만이천신왕호비구주경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咒經』·『불설관정십이만신왕호비구니경佛說灌頂十二萬神王護比丘尼經』·『불설관정삼귀오계대패호신주경佛說灌頂三歸五戒帶佩護身咒經』·『불설관정백결신왕호신주경佛說灌頂百結神王護身咒經』·『불설관정주궁택신왕수진좌우경佛說灌頂呪宮宅神王守鎮左右經』·『불설관정총묘인연사방신주경佛說灌頂塚墓因緣四方神咒經』·『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咒經』·『불설관정마나라단대신주경佛說灌頂摩羅壺大神咒經』·『불설관정소오방룡왕섭역독신주상품경佛說灌頂召五方龍王攝疫毒神咒上品經』·『불설관정범친신책경佛說灌頂梵天神策經』·『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佛說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불설관정발제과괴생사득도경佛

권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이하 복마인주경)이다.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을 행하여 당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신인종의 시조가 되었는데, 그 비법이 7권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정경』전권이 제7권과 같이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각 경의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신불의 보호 아래 개인과 국가가 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정경』이 잡밀 계통의 경전인 것은, 중국 선무외로부터 법을 전수한 신라 의림화상(義林和尚)⁹⁾이 현밀을 신라에 소개한 것이 8세기 초이기 때문이다.

밀교의 초기단계부터 달라나는 중요시 되었는데¹⁰⁾ 『관정경』은 달라니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며, 선업과 참회를 통해야만 득도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밀교가 다분히 기복적이고 현세 이익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지만, 『관정경』각 경은 수많은 신의 외호 속에서 신들을 예경하면서 선업을 쌓을 때 얻는 양질의 삶과 죽음에 관한 종합적인 신불구복신앙이다.

『관정경』의 특징은 다른 경전들이 보살과 제자들을 위주로 석가모니와의 문답인 반면, 각 소경은 비구(1권)·비구니(2권)·외도·범지(3권)·제석천(4권·7권)·목건련(5권)·아난(6권·9권)·범천(10권)·보광보살(11권)·문수보살(12권) 등의 여러 제자와 보살들을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문답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 경의 중생들이 원하는 내용, 구제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므로 문답 제자는 경이 추구하는 바를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12경의 내용과 대상이 각각 다르지만, 『관정경』은 초기 밀교의 형태로 밀교의 독자적인 수행 의례나 상징적 존격, 진언을 언급하며 재난방재나 현세이익을 위한 경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대승사상을 기반으로 수행이나 교학을 통하여 정각과 정도에 이르는 경전의 심오한 뜻을 주문이나 달라니라는 기능적인 수단으로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라 중고기 시대에 복합적이면서 신비하고 주술적인 의례지향화의 밀교사상을 담고 있는 『관정경』의 신라수용은 당시까지도 짙었던 신라 토착 종교와의 갈등과 융합을 거쳐 폭넓게 수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수호나 개인 구복적 성향이 강하면서 동시에 열반에 이르는

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9) 중국 현밀(顯密)의 선구자인 밀교삼장 선무외(善無畏, 637~735)가 입당하여 『금강정경金剛頂經』, 『대일경大日經』 등의 현밀경전을 한역한 것이 716년경부터였다. 의림화상에 대하여는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체징이 찬술한 『혈맥보』에 의림이 선무외로부터 전수받고 신라로 돌아와 103세 고령으로 밀교의 흥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10) 김연민, 『신라 문무왕대 명랑의 밀교사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30, 2008, p.13.

과정을 설명하는 『관정경』이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서 전해 내려왔느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 『삼국유사』·『삼국사기』·『해동고승전』등의 기록에 의거하여 생각해보려고 한다.

Ⅲ. 유학승의 교류로 살펴본 전래시기

1. 명랑법사에 의한 전래에 대한 의문

『관정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신라에 처음 들어왔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삼국유사』에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을 행했다고 전하기 때문에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¹¹⁾ 그러나 명랑법사가 신인비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유입시킨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문두루법을 신인비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관정경』 제7권 『북마인주경』에 역자의 부가설명이 있기 때문이다.¹²⁾ 한편, 명랑이 행한 문두루법은 비단 『북마인주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의 영향을 받아 변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마인주경』에 없는 유가명승 12인승의 참여와, 오방대신의 명호를 나무에 새기는 대신 오방대신의 모습을 풀로 엮었다는 것, 또는 사천왕사를 급히 건립하는 것으로 보아 동진시대의 신통술이 뛰어났다고 하는 담무참에 의해 번역된 『금광명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인다.¹³⁾

명랑은 선덕여왕 원년(632)에 입당하여 635년 귀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명랑이 신인비법을 행한 것은 당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 사천왕사를 창건하는 668년이다. 그가 귀국한 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의 행적은 물론 문두루와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명랑은 자장율사의 외조카이다. 자장의 영향을 받고 자랐을 명랑이 자장보다 먼저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는 것도 쉽게 수긍 가지 않은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자장의 아버지인 무림에게 늦게까지 아들이 없어 천수관음에 기도한 덕분으로 자장을 낳았으므로 자장과 조카의 나이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와¹⁴⁾ 자장은 두 번째 아들이라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¹⁵⁾ 기록의 사실성을 따지기 전에 명랑의

11)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 범민』, 『삼국유사』 권5, 신주6, 『명랑신인』.

12) 胡言文頭婁者 卽言 神印也.

13) 문명대, 『新羅 神印宗 研究』, 『震檀學報』 41, 1976, p.205.

14) 옥나영, 앞의 논문, 2007, pp.252~258.

15) 자장이 활동했던 시기는 선덕왕대(632~647)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덕왕』조에

유학 기간은 오고 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3년에 불과한데, 그가 문두루법 등의 밀교의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3년의 짧은 수학 기간이 의문이 든다. 명랑이 유학중에 다라니 혹은 주문과 관련한 의례와 작법 등을 수학했다고 짐작¹⁶⁾ 하기도 하지만, 명랑에 의한 『관정경』 전래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삼국유사』 <문호왕 법민> 조의 기사이다. 신라에서는 당나라 침입 소식이 알려지자 왕이 군신을 모아놓고 방비책을 물으니 각간 김천존(金天尊)이 말하기를, “요사이 명랑법사가 용궁에 가서 비법을 전수 하고 왔으니 청컨대 조서로 물으십시오.”¹⁷⁾라고 아뢰다. 이 기록을 보면 분명히 당나라 침입 소식이 있기 전에 용궁으로부터 비법을 알아 온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명랑신인> 조의 기사와 약 30여 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랑은 635년 돌아와서 문두루법을 행하기까지 33여 년이 넘도록 그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금광사金光寺> 본기를 인용하여 명랑이 용궁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다음 기사와 같이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명랑법사가 신라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들어가 불도를 배우고 환국하는 길에 해룡의 청을 받아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했는데, 금 천 냥(천근이라고도 함)을 시주하므로 이걸 가지고 땅속으로 숨어 와서 본가의 우물 밑 명치에서 솟아 나왔다. 이어 자기 집을 회사하여 절을 만들고 용왕이 시주한 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니 유달리 빛이 났으므로 금광사라고 하였다 한다.¹⁸⁾

용궁이나 우물 모두 보통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며, 그 확인도 가능하지 않은 특별하면서도 샤먼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공간이다. 실존은 확실하지만,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의 신이성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비법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하여 용궁이라는 공간과 자신의 집 우물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이성과 은밀성이라는 밀교적인 성격이 다분히 보인다. 이러한 출처가 확인

는 남산 우지암에서 개최된 6인의 원로회의에 자장의 아버지 무림이 4번째로 거론되고 있다. 진덕여왕이 647~654년에 왕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고 원로 실력자로 진덕왕대 까지 생존하였다는 말이 된다, 무림에게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천수기도에 의해 자장이 태어났고, 일찍 양친을 여의고 출가했다고 하는 『삼국유사』 권4 의해5, 「자장정율」조는 맞지 않다. 한편 민지(閔漬, 1248~1326)가 지은 『봉안사리개건사암제일조사기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 「대산본기臺山本記」, 『오대산월정사사적五帶山月精寺事蹟』에는 자장은 무림의 둘째아들이라 하였고, 『속고승전』 권15, 「법상전」에서는 신라 왕자라고 하였다.

16) 장익, 「명랑과 문두루법과 진호국가밀교」, 『밀교학보』 16, 2015, p.15.

17)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 법민」,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18) 『삼국유사』 권5, 신주6, 「명랑신인」.

되지 않은 비법은 주술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의 은밀성은 후에 당나라 고종의 비법 개방요구에서 나타난다.

시찰을 위해 사신으로 온 악봉귀는 황금 천 냥의 뇌물을 받고 사천왕사를 대신하여 급히 새로 지은 망덕요산지를 다녀온 후 사천왕사를 보고 왔노라고 거짓으로 보고한다. 명랑법사가 용궁으로 받아 온 천 냥의 황금과 당나라 사신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가 같은데, 당시 사천왕사는 당나라 사신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국가수호 비법을 행하는 사찰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황금 천 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을 용궁으로부터 가져오는데, 천 냥의 황금과 함께 받아왔다고 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러한 우물을 수단으로 하는 특별한 공간을 드러내는 설정은 비단 명랑법사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한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 지장신앙과 지옥사상을 처음 보급하고 확산시킨 인물은 헤이안 시대의 관료인 소야황(小野篁, 오노노 다카무라, 802~852)으로 알려져 있다. 소야황은 건당사로서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낮에는 조정의 관료이며, 밤에는 염라대왕의 관료로 일했다는 전설이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¹⁹⁾에 보인다.

그 전설의 사적지로 교토에는 육도진황사(六道珍皇寺)에 유명한 우물이 있다. 소야황이 낮에는 조정 관료이었다가, 밤에 염라대왕 청에 근무하러 가는 통로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이곳에 <小野篁冥土通いの井戸>라고 하는 우물이 존재하고 보호되고 있으며 성지로서 순례 되고 있다. 또한 교토 차야야(嵯峨野) 지역의 차야복정사(嵯峨福正寺)에는 소야황이 염라청에서 돌아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소야황은 밤에 육도진황사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 염라대왕 밑에서 일하다가, 아침이면 자신의 집 우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²⁰⁾

이렇듯 신이하면서도 확인할 수 없는 독특한 공간으로 우물을 비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인물에 대한 위신력과 신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수신개념의 용을 불법과 비밀수호의 매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육왕이 용궁에서 가져온 팔만사천 상자나, 용수가 용궁에서 『화엄경』을 구해왔다는 신이성에서 이어진 불교적 윤색일 것이다.²¹⁾

한편, 『관정경』과 관련된 서책 찬술은 문무왕대의 경흥법사(憬興法師)가 『관정경소(灌頂經疏)』 2권을 찬술하였다. 명랑이 『관정경』을 직접 수용하고 그 비법을 행하였다면,

19) 헤이안 말기 12세기 전반에 성립된 인도·중국·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설화를 엮은 책이다.

20) 下泉全曉, 『地藏菩薩』, 東京: 春秋社, 2015, pp.134~138.

21) 이후에도 경전을 가져올 때는 바다 신룡의 보호가 있음을 『삼국유사』, 『전후사리소장』조에 신라 말 보요선사가 오월(吳越)에서 대장경을 구해 올 당시를 예로 말하고 있다.

그가 문두루법 실행 이외에 어떠한 찬술 기록이 있을 법하지만 전해지는 바가 없다. 오히려 현교 승인 경흥이 『관정경소』를 찬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주석서가 찬술되었다는 것은 이전 시기에 의례나 신앙만이 전래되었다가 그 시기에 경전이 유입되어 사상체계가 명확하고 구체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나라에 대항하는 병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두루법의 근거와 영험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장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유신의 행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라는 토착 호국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면적 성격이 강하였다.²²⁾

그 때문에 토착종교와 밀교적 특징을 융합하여 불교를 신라에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염원은 현교승과 밀교승이 따로 일수가 없다. 일종의 시대를 반영하는 방편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무왕이 유언으로 국사로 삼을 것을 당부할 정도²³⁾로 신뢰한 경흥이 『관정경』의 주석서를 찬술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명랑은 문두루비법을 행한 것 말고는 어떠한 찬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랑이 어느 시기에 신인비법을 배워 온 것은 맞을지라도, 귀국할 때 『관정경』을 가져왔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명랑 이전에 이미 들여왔을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정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광명경』과 더불어 동진시대에 한역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기록을 염두에 두고 진흥왕대의 유학승의 교류를 살펴보자.

2. 진흥왕대의 전래

진흥왕은 그의 개인적인 불교관을 바탕으로 왕위에 있는 내내 불교 치국책을 실행하였다. 그의 불교 행적을 살펴보면, 사찰을 건립하고 승직을 창설하였으며, 사리와 불교 전적을 수입하고, 불교 의례를 개최하고 화랑제도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스스로 승려가 됨으로써 불교 계율을 준수하였다.²⁴⁾ 진흥왕은 국정운영을 위하여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교에 관한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심혈을 기울인 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진흥왕대에 적극적인 경전 수입과 함께 『관정경』도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진흥왕대에 일어난 불교와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그 전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유신」;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3) 『삼국유사』 권5, 감통7, 「경흥우성」.

24) 김종명,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학술정보, 2014, p.27.

- 5년, 법흥왕 때 착수한 흥륜사를 완성하고, 일반인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다.
- 10년, 양나라 사신 심호(沈湖)가 유학생 각덕(覺德)과 함께 석가의 사리를 가져오자, 흥륜사 앞길에 나가 맞아들이다.
- 11년, 안장(安藏)을 대서성(大書省)으로 삼다.
- 12년, 거칠부가 데려온 고구려 승려 혜량을 승통으로 임명하다.
- 13년, 혜량이 백좌강회, 팔관법회를 개최하다.
- 14년, 황룡사 건립을 시작하다.
- 26년, 진(陳, 557~589)에서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이 1,700여 권 불교 전적을 보내오다.
- 27년, 황룡사, 기원(祇園), 실제(實際) 절이 완성되다.
- 33년, 연호를 ‘흥제’로 바꾸고 팔관연회를 외사(外寺)에서 7일간 개최하다.
- 35년, 황룡사의 장륙불상이 완성되다.
- 37년, 원화·화랑제를 창설하고, 고승 안홍(安弘)이 중국에서 돌아오다. 말년에 법운 승려가 되다. 애공사(哀公寺)의 북봉에 장사지내다. 왕비가 영흥사의 승려가 되어 머물다 죽다.

사료에 의하면 진흥왕은 국왕의 지위에 있는 동안 내내 불교중흥을 위한 치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관이 들여온 1,700여 권²⁵⁾의 전적은 진흥왕의 불교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의 기사에 의거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흥왕 10년 조를 들 수 있다. “진흥왕 10년 봄, 양나라가 사신을 시켜 유학생 각덕(覺德)과 함께 부처의 사리(舍利)를 보내오므로 왕은 여러 관원을 데리고 흥륜사(興輪寺) 앞길에 나가 맞아들였다”²⁶⁾라고 기술하고 있다. 진흥왕 10년은 지소태후의 섭정 시기지만, 진흥왕 12년(551)에 친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때에는 태후의 의견과 함께 진흥왕 개인의 생각에 따른 행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리를 가져온 승려 각덕에 관한 자료인 『해동고승전』에 의하면 “각덕은 신라사람으로 총명하고 박식하여 범인인지 성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출가한 본뜻에 어긋난다고 하며 신라 최초로 양나라로 유학

25) 『해동고승전』 제1권에서는 700여 권, 제2권 각덕·명관 조에는 2,700여 권으로 기록되었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26년, 『삼국유사』 권3, 탐상4, 『진후소장사리』 조에 1,700여 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계는 『고승전』의 기록을 오타로 보고 있다.

26)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0년.

하였다고 한다.”²⁷⁾ 각덕은 당시 최고 엘리트로서, 이를테면 제1호 국가장학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단순히 승려로서 불도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승려가 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로 충효와 불교숭상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나라 유학에서 돌아올 때는 자신이 배운 학문을 널리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쓸 것을 다짐하고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치승의 이미지가 다분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또 “법수(法水)로써 바다신라 끝까지 두루 적시어 게으른 사람들을 모두 똑바로 세워 널리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다”²⁸⁾고 했으니, 이러한 기록은 각덕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으며, 비록 사료에는 최초로 사리를 가져온 것만 기록되어 있고 경전의 전래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신라 땅에 불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근거와 수단인 되는 경전을 사리와 함께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에는 사리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식이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각덕은 그 의식의 집전과 함께 경전을 가져왔거나 그 의례를 배워왔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하였듯이 사리가 신라 땅에 온 것은 이때가 최초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리 모시는 의식을 배워 기억으로만 담기에는 그 의식이 너무 중요하다. 불교가 신라에서 초석으로 다져지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을 것이다. 각덕이 유학하는 동안 이미 동진에서 『관정경』이 한역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과 불교를 배우기 위한 유학승이라면, 사리를 모시는 근거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정경』을 들여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금광명경』과 더불어 국토수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명랑에 의해 행해진 문두루법 또한 반드시 『관정경』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라 『금광명경』을 함께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필요한 국토수호의 내용이 복수의 경에서 설해지고 있을 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시기 양나라는 후경(侯景)의 난 전후로 양무제 사망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다. 양무제는 알려진 바대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만큼 대단한 호불군주로 여러 차례의 사신공양과 채식을 실천하며 단주육문(斷酒肉文)을 공표하여 종묘 제사에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⁹⁾ 그밖에 평등대회, 무차대회 등을 열어 사신이 행해졌고, 우란분회와 수륙대재회를 자주 행하기도 하였다.

27) 『해동고승전』 권2, 유통.

28) 『해동고승전』 권2, 유통, pp.54~55.

29) 『梁書』 권2, 『武帝記』.

양무제는 많은 고승을 초빙하여 불교 교리를 연구하고 강회(講會)를 주최하여 친히 『열반경』·『반야경』·『삼해경』 등을 강경하기도 하고 경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당시 학승에게 많은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무제의 불교 신봉책으로 많은 고승들이 활약하였는데, 무제가 보살계를 청한 혜약(慧約)을 비롯하여 양나라 3대법사로 알려진 승만(僧曼), 지장(智藏), 법담(法曇)과 더불어 승우(僧祐, 445~518),³⁰⁾ 중국 초기 불교사의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하는 『고승전』을 찬술한 혜교(慧皎, 497~554) 등 고승들이 대거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승가바라(僧伽婆羅), 만다라(曼陀羅), 진제삼장(真諦三藏)³¹⁾ 등이 들어와 남조 불교를 꽃피웠다. 양의 도읍지 건강은 큰절이 700여 곳이며 항상 승니강중이 1만 여가 있다고 기록될³²⁾ 만큼 남조불교가 융성하였다. 수많은 학승들의 찬술과 번역이 있고도 무제는 부남국(扶南國)에 명승 초빙을 의뢰하여 진제를 초청하기도 한다.³³⁾ 이후 진(陳)으로 왕조가 바뀐 상황에서 진제는 이미 담무참에 의해 번역된 『금광명경』을 다시 번역한다. 이는 왕조가 교체되는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은 신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천왕품」에 국가 보호나 현세적인 신앙이 설해진다. 사천왕은 모두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천신들로서 각각 무량한 백천귀신과 선신들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고 또 정법을 수지하는 무량한 국토를 지켜주고 있다. 『관정경』이나 『금광명경』, 『인왕경』 모두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사천왕의 국토수호 방법과 상통하는 경전이다.

이와 같이 각덕이 사리를 가져오는 시기는 양나라의 불교중흥 시기에 수많은 전적이 찬술되었기 때문에 몇몇의 경전이 특별히 유행하기 보다는 그 이전시기부터 유통되고 있던 전적에 새로 번역된 다수의 전적이 함께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후경의 난으로 양나라에 변화와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로 전쟁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하는 경전류가 대거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로써 양무제의 수륙대회나 무차평등대회 등의 불교의례, 사회정치적 변화와 수많은 전적들은 진흥왕의 치국뿐만 아니라 말년의 행적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둘째, 진흥왕 26년 조의 “진나라는 사신 유사(劉思)와 함께 승려 명관(明觀)을 함께 보내면서 불경 1,700여 권을 전달하였다.”를 들 수 있다. 진흥왕 26년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가 망하고 계속하여 불교 옹호 군주인 진(陳)나라가 들어서면서 불교 교류는 계속

30) 동진시대부터 양나라까지의 불교관련 기록을 담은 『弘明集』·『釋迦譜』·『出三藏記集』 등을 찬술하였다.

31) 진제(Paramartha, 波羅末陀, 499~569) 서진축국 출신으로 양무제의 초청으로 대동 14년(548)에 건강에서 무제와 만났다.

32) 『破邪論』 권하.

33) 『南史』 권7, 『武帝紀論』.

된다. 동진이 망하고 유송(劉宋)이 건국되었을 때, 유송의 문제(424~453)는 30년 간 왕위에 있으면서 송의 안정을 이끌었다. 문제가 죽자 아들 효무제(454~463)가 등극하며 문제의 제삿날에 팔관제를 베푼다. 이는 30여 년 간 통치한 문제의 불교 치국책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송왕조가 앞선 동진에서 행해진 불교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은 물론이며, 유송대의 불교문화가 제(齊)와 양(梁)을 거쳐 진(陳)나라까지 전승되었음은 짐작할 만하다. 남조의 송·제·양·진 4국 모두 단명 국가로서 황실 간의 인척 관계가 얽혀 있음으로³⁴⁾ 남조 간의 불교의식 문화는 공유되고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에서 불경 1,700여 권을 보낼 때 경명(經名)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관정경』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 『해동고승전』에 보인다. 명관이 가져온 불경의 많은 양에 대해 “처음에 즉 신라가 불법의 교화를 처음으로 뿜을 때는 경전과 불상이 빠진 것이 많았지만 이때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다.”³⁵⁾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에 불교 전적을 들여온 것은 명관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진흥왕 26년 이전에 비록 완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수의 불교 경전이 유입돼 있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명관이 가져온 불교 경전은 그때까지 신라에 있던 불교 교리를 더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각덕·명관을 이어 해동고승전은 지명(智明)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의 범상하지 않음에 대하여 “신통과 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뛰어났으며, 행하고 그침이 법도에 맞았다. 안으로는 비밀스러운 수행을 닦아 쌓으면서도 항상 남을 덕을 찬양하고……”³⁶⁾라고 하였다. 지명은 진평왕 7년에 진(陳)으로 구법을 떠나 17년간 유학하였다. 그가 신라에 있을 때 신통력이 있고 비밀스러운 수행을 닦았다는 의미는 신라에 밀교 전적이 들어와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떤 종류의 전적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각덕이나 명관을 통해 진흥왕대에는 이미 『관정경』이 전해 내려오고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비밀스러운 수행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이들이 유학하기 전 신라에 들어와 있던 밀교 경전을 파악하고 유학길에 올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지명을 나타내는 신행과 밀행 등의 표현이 반드시 밀교승에게

34) 『역대삼보기』 권3.

35) 『해동고승전』 권2, 유통, 『명관』.

36) 지명에 관한 기사로는 『해동고승전』 권2, 유통편과 『삼국사기』의 진평왕 7년 7월, 24년 9월 기사에 보인다. 사분율에 관한 신라최초의 주석서 『사분율갈마기(四分律羯磨記)』 1권을 저술했다고 전한다.

만 적용되는 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에 선덕왕의 치병을 위해 등장하는 밀교승³⁷⁾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선덕왕이 현교승의 치병의식이 듣지 않자 새로운 밀교승에 의해 치료가 되는 내용은 이미 신라사회 저변에 최사 이전부터 밀교승의 활약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즉 이들이 밀교 경전을 파악하였다면 잡밀 계통이었을 것이며, 『관정경』 또한 잡밀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진흥왕 말년인 37년 고승 안홍(혹은, 안함)의 귀국기사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수에 들어가 불법을 공부하고 호승(胡僧) 비마라(毗摩羅) 등과 함께 돌아와 『능가승만경(楞伽僧鬘經)』과 부처의 사리를 바쳤다”³⁸⁾고 하였다. 그러나 수나라가 건국된 것은 581년으로 진평왕 3년이고 안홍은 진평왕 1년인 579년에 태어났다,³⁹⁾ 생존 연대가 진흥왕대일 수는 없으며, 거기다 당시 구법을 떠나는 승려라면 국가의 지원으로 떠난 고승 대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독 안홍의 기사는 떠난 시기와 귀국한 시기가 나뉘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신종원은 안홍이 귀국한 날짜가 원광이 출국한 해로 보고, 안함과 안홍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를 보였다.⁴⁰⁾ 실례로 각훈은 『해동고승전』을 저술하며 <유통> 조를 통해 진흥왕대의 최초 유학승 각덕에서 시작하여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면서, 최치원의 『의상전』을 근거로 안함과 안홍을 같은 인물로 보고, 이에 안홍은 원광 뒤에 기술하고 있다.⁴¹⁾ 때문에 『관정경』이 안홍에 의해 들여왔다 할지라도 그 시기는 진흥왕대가 아니라 진평왕대가 된다. 지금까지 진흥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불교 전적의 수입과 승려의 유학 교류 기사로 살펴보았을 때 『관정경』은 진흥왕대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진흥왕의 불교 치국 책에 따른 내용 기사로 『관정경』의 수입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37) 『삼국유사』 권5, 신주6, 『밀본최사』.

38)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4, 진흥왕 37년.

39) 신종원, 『신라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1998, p.127 <표 2> 참조.

40) 신종원, 앞의 책, 1998, pp.122~124.

41) 안함의 전기는 『해동고승전』 이외에 어느 사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수문제가 칙명으로 대흥성사에 머물게 하였다고 하지만 그 절은 당 태종 정관 2년에 건립되었으므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때문에 학계는 수문제가 건립한 대흥선사의 오기로 보고 있다. 안함은 『삼국유사』 권3 <동경흥륜사금당십성> 조의 동쪽 벽에 앉아 서쪽을 향한 다섯 분 중의 한분으로 이름만 기록되었다. 한편 각훈은 『동도서립기』를 안함의 저술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을 들어 안홍과 함께 온 서역승의 이름과 안함이 지은 참사의 내용인 선덕왕의 지기삼사나 삼국통일 예견 등의 근거로 안함과 안홍은 글자의 오기로 동일인물로 간주하여 전기를 묶어 기술하였다. 신종원은 단속사지 신행선사 비문의 안홍 기록을 근거로 안함과 안홍을 동일인물로 간주하였다.

Ⅳ. 치국책으로 살펴본 전래시기

1. 팔관재, 백좌강회 거행

신라에서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왕권 강화의 과정에서 수용된 불교가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정한 불교사상이 신라 사회의 역동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⁴²⁾ 진흥왕대의 국가행사는 국왕의 불교관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신라를 경영하는 치국책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팔관재는 진흥왕대에 처음 언급되는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승려 혜량과 팔관법회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고, 열전 <거칠부>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거칠부는 수레에 같이 타고 돌아와 왕에게 뵈니 왕은 그를 승통으로 삼고 비로소 백좌강회와 팔관법회를 열었다”⁴³⁾ 또, 진흥왕조에 혜량이 들어온 기사는 보이지 않는 반면, 33년 기사에는 불교 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겨울 10월 20일에 전쟁 때 죽은 장병을 위하여 외사(外寺)에서 팔관 연회를 베풀어 7일 만에 마쳤다”⁴⁴⁾라고 전한다. 팔관재⁴⁵⁾는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였는데 죽은 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열반을 얻는 것이 팔관재의 목적이다.

혜량은 승려 신분이었던 거칠부가 고구려 정탐을 목적으로 잠입하였을 때 만난 인연이 있었는데, 진흥왕 12년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을 때 미리 문도를 데리고 거칠부를 기다렸다고 하였다. 이는 혜량이 고구려를 떠나 신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적국의 승려무리가 신라로 들어가면서 불교에 관한 아무런 전적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 팔관재를 개최한 혜량은 의식집전에 대한 지식과 소의 경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고구려에서 넘어올 때 여러 경전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혜량 혼자가 아니라 문도와 동행했다면 더욱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신라불교의 수준은 고구려에 비해 뒤져있는 상태이므로 혜량은 불교에 관한 여러 불구나 경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42) 윤세원, 『신라 초기 불교의 정치사상』, 『신라문화』 4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6, p.51.

43) 『삼국사기』 열전, 「거칠부」.

44)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33년.

45) 팔관재란 재가신도가 출사스님의 계율을 본받아 매월 육재일(8,14,15,23,29,30)만이라도 8계를 지켜 선을 쌓는 것을 말한다. 내용으로는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불망어, 불음주의 5계에, 향수나 화장품 바르는 것을 금함, 좋은 침상에서 한가로이 누워있는 것 금함, 크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 금함 등의 세 가지를 더한 것이다.

진흥왕은 법흥왕대에 중단된 흥륜사 건립을 완성하였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태후의 섭정 정책이었다. 그러나 백부인 법흥왕의 치국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진흥왕의 국가관은 자연스럽게 불교관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의 불교관을 보여주듯 진흥왕이 친정⁴⁶⁾을 시작하면서 거행한 불교 행사는 혜량이 주관한 팔관재였다. 모든 불교의식은 밀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⁴⁷⁾ 혜량이 입국한 해에 바로 도량을 개설한 것을 보면, 고구려에 이미 밀교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팔관재란 8가지의 계를 지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이다. 『관정경』이 일관되게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재계를 지킴으로써 십선을 쌓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다. 제3권은 재개를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시방 3세의 여래(如來) · 지진(至眞) · 등정각(等正覺)이 모두 삼귀의와 5계를 얻음으로 연유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범지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살생하도록 시키지도 말라. 이 계를 지킬 수 있겠느냐? 만일 지킬 수 있다면 다섯 명의 신앙이 따라다니며 너의 몸을 보호하여 사된 신(神)과 악한 귀신이 틈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⁴⁸⁾

진흥왕 13년 팔관재는 혜량이 승통이 된 직후이며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한 해이다. 33년에 치러진 팔관재는 연호를 홍제(鴻濟)라 하여 국가쇄신을 하고자 했으나, 3월 태자 동륜이 죽는다. 그리고 10월에 7일 간 팔관재를 개최한 것은 전몰 병사를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죽은 태자의 고향을 위한 흔적이 엿보인다. 동륜은 진흥왕이 전륜성왕을 꿈꾸며 지어준 이름이었다. 국토확장과정에서 죽어간 병사들과 죽은 태자를 위한 추선공양으로 팔관재를 30여 년 만에 다시 개최한다. 이로써 팔관재는 진흥왕대에는 비정기적 행사로 진흥왕의 불교관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혜량이 팔관회와 같은 해 베풀었다는 백좌강회는 인왕법회 · 백고좌회 · 백고좌도량 · 인왕백좌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목적의 의례이다. 백좌강회는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이하 인왕경)』의 호국품을 근거로, 도량을 베풀 때는 사천왕의 국난 극복을 위한 밀교 의례를 치르는 것이 중심이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여 백고좌회가 설해졌다면 과거칠불과 찰리종사상을 수용한 진흥왕대에 『관정경』 또한 이미 수용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정황으로 보아

46) 진흥왕 12년 정월, 선대에 쓰던 건원(建元) 대신 개국(開國)이라는 새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진흥왕의 친정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47) 종석, 『밀교학개론』, 운주사, 2000, p.33.

48) 『관정경』 권3, 『불설관정삼귀오계대패호신주경』.

진흥왕대에 인왕회나 팔관회 모두 호국을 위한 경전의 목적이 분명하며, 의례 역시 밀교적 내용이 다분함에 있어 진흥왕대에 처음 열린 백고좌회는 『관정경』의 제7권과 8권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국토를 수호하는 사방의 신과 과거칠불에 대한 설명은 이미 진흥왕대에 『관정경』 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인왕회의 소의경전은 『인왕경』에 근거하겠지만 전술한 바대로 문두루법이 『금광명경』과 『관정경』을 함께 인용하듯이 인왕회 또한 『인왕경』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경』에 의지한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우란분회는 양무제가 최초로 개최⁴⁹⁾한 추선공양이지만 진흥왕대에 우란분회를 열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양무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진흥왕이 아들을 잃고 난 후 우란분회를 열지 않고 팔관제만 열었다는 것은, 『관정경』에 우란분회 내용이 설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탑사의 건립

『삼국유사』는 법흥왕대의 이차돈 순교 기사를 다루면서 진흥왕대에 왕경에 흥성한 사찰과 사리탑의 건립에 대해 “진흥대왕 5년 갑자년에 대흥륜사를 지었다. 태청(太淸) 초에 양나라 사신 심호가 석가의 사리를 가져왔고, 천가 6년에는 진나라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이 불경을 가지고 오니, 절들이 별처럼 들어서고, 탑들이 기러기 날아가듯 늘어섰다.⁵⁰⁾”라고 묘사하고 있다.

탑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리를 모시는 묘의 기능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탑을 세움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공덕으로 새로운 신앙체계, 사상체계를 세우고 치국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였을 것이다. 탑을 조성한다는 것은 부처의 위신력으로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국의 성격이 강한 밀교적 신앙이다. 탑의 조성으로 받게 되는 공덕을 『관정경』 6권은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충묘인연사방신주경』으로 경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탑을 세우면 사방의 신이 보호해주는 내용으로, 여래의 주검 처리와 장례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아난을 통해 석가의 사리를 모시는 탑 조성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이제 이 대중 가운데에서 사리의 복덕 인연을 자세히 말하겠다. 이 사리는 비록 깨나 쌀과 같으나 각기 위신(威神)이 있다.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 등이 지극한 마음으로 탑사(塔寺)를 일으키고자 생각한다면, 전일한 마음과 한결같은 뜻

49) 渡辺照宏, 한경수 역, 『불교사의 전개』, 불교시대사, 1992, p.159.

50)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염축멸신』.

으로 사리를 생각하라. 그러면 사리가 감응하여 곧 탑을 일으켜 공양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 본심(本心)이 본원(本願)과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가 비록 깨나 쌀과 같으나 커다란 위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 등이 무덤과 탑을 일으킨다면, 또한 사천(四天)과 삼십삼천이 감동하여 천상의 가루로 된 온갖 잡향(雜香)을 비 내리듯 뿌려 이 탑에 공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길이 부처를 만나 8난(難)에 떨어지지 않고, 공덕을 쌓아 정각(正覺)을 이룰 것이다.⁵¹⁾

이처럼 사리를 봉안한 탑이 있는 곳은 외부의 모든 침략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흥왕 10년에 각덕이 모셔온 사리를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므로 진흥왕 5년에 완성된 흥륜사에 모시면서 의식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 어디에도 각덕이 모셔온 사리를 어떻게 어디에 모셨는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명관이 가져온 전적들 안에 『관정경』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명관이 가져온 전적 안에 『관정경』이 포함되었다면 탑의 조성 공덕을 다시 새기며 새로운 탑묘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의례를 하였을 것이다. 탑을 세우는 공덕은 사방의 모든 신이 나쁜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사천왕이 동남서북에서 보호하고 도와주니 그 공덕이란 갖가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진흥왕 27년에는 황룡사와 기원사, 실제사가 건립되었다. 기러기 날아가듯이 탑이 늘어섰다는 문장은 과장된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불국토를 만들고자 했던 진흥왕의 염원이 서린 발상은 『관정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진흥왕 자신의 불교관과 치국에 관한 사상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칠처가람과 과거칠불, 찰리종의 근거

일연은 진흥왕 14년에 건립된 황룡사와 관련된 내용이 <자장전>과 <옥룡집> 그리고 여러 사람의 전기에 한결같이 실린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황룡사에 직접 가서 본 연좌석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라의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가섭불이 연좌석 하던 돌이 있다. 그곳은 전불(前佛) 때에 지었던 절터이고, 지금의 황룡사 자리이니 곧 일곱 가람중의 하나이다. 돌의 높이가 5, 6척이 되고, 둘레는 세 주인데, 곳곳이 쪼고 위는 편평하더라. 진흥왕이 절을 세운 뒤로 두 번이나 화재를 겪어 돌이 조금 터진 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절의 승려들

51) 『불설관정경』 권6, 『총묘인연사방신주경』.

이 쇠를 감아 보호하였다.⁵²⁾

위의 기사는 칠처가람, 신라불국토, 신라찰리종 등 진흥왕대의 신라불교에 대한 사상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기사이다. 전불시대라 함은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칠불⁵³⁾을 가리키고 가섭이라 함은 칠불 중 여섯 번째 부처를 말한다. 진흥왕 시기에 전불시대의 칠불 사상을 기반으로 황룡사를 건립했다 함은 칠불이 등장하는 경전에 대한 전래가 이미 있었고, 그에 관한 상식의 수용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불교 호국의 상징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아도본비>를 인용하여 아도 어머니인 고도녕(高道寧)을 통해 진흥왕 이전에 전불시대의 칠처가람을 언급하고 있다.⁵⁴⁾ 그러나 <아도기라> 조에서 언급되는 칠처가람설이 형성된 시기는 문무왕대 이후 성립된 설로, 8~9세기 초기가 유력하다는 견해를 보인다.⁵⁵⁾ 황룡사를 포함하여 개창된 시기가 각각 다른 7곳의 가람을 과거불과 연관된 사찰들로 묶기 위해 중고기 불교의 특징을 반영하여 불교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고도녕이 말한 일곱 곳의 절터인 칠처가람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후 형성된 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당시 『관정경』의 사상 수용에 따른 것이라면 경주 내의 칠처가람설은 후대에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칠불 사상은 진흥왕 대에 이미 깊게 수용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권은 천제석이 석가모니께 국토수호와 가택수호를 하는 신불에 대해 질문하는 장이다. 사천왕의 역할은 각각 모든 자연재난과 역적을 물리치며, 치병과 구설(口舌)을 막아주고, 재이(災異)를 일으키는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한다. 이어 과거 7불의 문두루무상장구(章句)와 명자(名字)를 설한다.⁵⁶⁾ 문두루라는 호칭은 신이 보호하는 증표에 해당하므로 명호와 문두루 주문만 외우면 신불의 보호가 보장되고 있던 셈이다.

한편 석가모니는 사방 신의 보호보다 더 수승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과거칠불의 위신력에 대해 각 장구를 마흔아홉 번을 부르면 그 공덕이 못 악마를 소멸시키고 길상을 얻게 되는 데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수호를 위한 여섯 번째

52) 『삼국유사』 권3, 탐상4, 『가섭불연좌석』.

53) 과거칠불이 나오는 경전은 『장아함경』·『불명경』·『보요경』·『칠불경』·『비파시불경』·『칠불부모성자경』·『증일아함경』·『관정경』·『다라니잡집』 등이다.

54) 『삼국유사』 권3, 흥법3, 『아도기라』.

55)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01, pp.64~65.

56) 『관정경』의 과거칠불은 제1 유위불(維衛佛)·제2 식불(式佛)·제3 수엽불(隨葉佛)·제4 구루진불(拘樓秦佛)·제5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제6 가섭불(迦葉佛)·제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다.

과거불인 가섭불이 신라 땅 왕경에 자리한 과거로부터의 인연으로 엮어지게 된다. 황룡사 연좌석이 현겁 세 번째인 가섭불의 좌대이므로 일곱 번째로 출현한 석가모니의 찰제리 종은 신라 왕실의 일원에서 출현할 것이므로 신라 왕실은 찰제리 종의 관계로 확대되기에 이른다.⁵⁷⁾ 따라서 과거불 시기부터 진흥왕대의 왕실과 국가는 신불의 힘으로 보호되는 설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장아함경』을 비롯하여 『관정경』 이외에 여러 경전에 과거칠불사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흥왕대에 행한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신불사상은 『관정경』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함축되어 있는 『관정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전륜성왕 사상

불교 공인에 가장 늦었던 신라는 새로운 제왕의 관념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륜성왕 관념이다.⁵⁸⁾ 전륜성왕사상은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 명문에 대해 다른 해석이⁵⁹⁾ 있기는 하지만, 법흥왕 혹은 진흥왕 대에 수용되어 국가통치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전륜성왕이라는 명칭은 전륜성왕이 성취하고 있는 칠보의 해석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미지 중 하나를 특화한 한역어이다.⁶⁰⁾ 이질적인 문화지역을 통일하여 하나의 국가로 경영하는 경전상의 아육왕의 활동상은 왕권 강화와 군사력의 정비를 힘쓴 진흥왕에게 있어 매력적인 사상이었을 것이다. 이는 진흥왕이 아육왕으로 대표되는 전륜성왕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인 결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진흥왕의 불교이념 중에서 전륜성왕 사상이 압축되어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황룡

57) 과거칠불은 바라문 종족인 과거장엄집 3불과, 찰제리 종족인 현재 현겁에 출현하신 3불,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출현한 석가모니불을 합하여 과거칠불이라 한다. 과거칠불의 세수는 경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종족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

58) 전륜성왕이 언급된 경전으로 『대륜탄경(大樓炭經)』·『관정경』·『장아함경(長阿含經)』·『중아함경(中阿含經)』·『잡아함경(雜阿含經)』·『구사론』 등이 있다. 전륜성왕은 부처와 동일한 32종을 구축하며 7종의 보배, 즉 전차(輪)·코끼리(象)·말(馬)·구슬(珠)·여인(女)·자산가(居士)·장수(主兵臣)를 가지고 4종의 신덕, 즉 오랜 수명(長壽)·근심이 없음(無憂)·잘생긴 용모(顏貌)·감추어둔 보배(寶藏)를 갖추었으며,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법(正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신화적·이상적 제왕으로 관념되었다.

59) 윤세원, 앞의 논문, 2016, pp.56~58에서 법흥왕의 일련된 치적과 ‘천전리 서석의 을묘명’에 기록된 ‘성법흥대왕’이라는 문구가 당대의 평가로 볼 수 있고 ‘성왕’, ‘대왕’ 등이 전륜성왕의 이명이라는 점을 들어 법흥왕대에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현, 『신라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정치사상』, 『신라문화』 54, 2019, p.94에서 ‘성법흥대왕’은 국왕의 초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왕호로 보고 있다.

60) 윤세원, 앞의 논문, 2016, p.53.

사를 창건하여 불교이념이 정치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와 불교적인 용어인 ‘홍제’를 연호로 제정하고 장육존상을 건립하는 시기가 그 최고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흥왕이 전륜성왕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들의 이름을 동륜, 사륜(철륜)으로 지었다는 사실에서 ‘홍제’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전륜성왕사상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진흥왕이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고 순행하여 신민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 등을 제시하는 포고령 성격의 순수비를 세운 것은 왕도정치와 이상적 제왕상에 근거한 유교적인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⁶¹⁾ 하는 수단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육왕을 롤모델로 삼은 전륜성왕 사상이 내포되어 그가 꿈꾼 왕권강화와 왕도정치는 불교적 사상을 수용하여 유교적 개념과 합치한 종합적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륜성왕사상은 서진시대에 한역된 『대루탄경』에서⁶²⁾ 처음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관정경(동진 317~420)』에 소개되고 있다. 전륜성왕 사상이 신라에 수용된 것은 『아육왕경(양나라 502~519)』을 통해서라고 알려졌다. 아육왕을 소개하는 경전은 대체로 초월적인 어떤 힘을 과장하여 말하거나, 현실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다.⁶³⁾

특히 아육왕이 못난 추남이며 불교로 전향하기 전에는 잔혹한 왕으로 묘사된 것은, 불교의 위신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제왕의 옷을 입을 성인 군주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왕이 아육왕을 데리고 용궁으로 가서 사리를 가지고 나와 8만 4천 개의 상자를 만들었다는⁶⁴⁾ 설정은 진흥왕이 바다로 떠내려온 아육왕이 보낸 재료로 장육상을 만들었다는 설화와⁶⁵⁾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설화적이고 과장적인 서술이 오히려 진흥왕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설화 수용은 진흥왕대에 토착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시 황룡사 창건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왕궁을 지으려던 습지에서 토속신앙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황룡이 출현하고, 용신은 아육왕이 용궁으로부터 상자를 얻어 부처의 사리탑을 지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용의 보호 아래 황룡사를 건설함으로써 비로소 진흥왕 자신이 아육왕은 완성하지 못한 불상주조에 성공한 절대제왕의 이미지인 전륜성왕이라는 핵심에 닿게 된다.

비록 양무제때 역경된 『아육왕경』에 의해 신라에 전해진 절대제왕의 이미지가 더

61) 최병헌, 앞의 논문, 2019, pp.102~107.

62) 『대루탄경(大樓炭經)』 제3권, 『전륜왕품(轉輪王品)』 서진(西晉)시대 법립(法立)과 법거(法炬)가 290~307년 낙양(洛陽)에서 번역하였다.

63) 일야, 『아소카』, 민족사, 2010, pp.108~109.

64) 한글대장경, 『잡아함경』 II 권, 『아육왕경』.

65)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 장륙』.

강하게 인식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정경』에서 설해진 아육왕의 설화는 진흥왕의 왕권강화 욕구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정경』은 여래가 열반 후 제자들이 어떻게 시신의 입관과 장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해 아육왕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내가 멸도한 후 말리가향성(末利伽香性) 바라문과 8대왕(大王)이 마가타(摩伽陀) 등에서 여러 탑묘(塔廟)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육왕(阿育王)이 있어 내가 멸도한 후 이 염부제에서 이 사리로 하루 동안 8만 4천 개의 탑묘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후 남긴 사리의 골(骨)로 염부제에서 불사(佛事)를 널리 지을 것이다.⁶⁶⁾

아육왕은 석가모니로부터 미래에 있을 선업에 대해 미리 부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진흥왕의 불교 치국책은 바로 이러한 경전 근거의 인지와 모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인지가 근본 교리의 완전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왕권 강화를 위한 구복과 국토 수호를 위한 기복적인 선에서 불교적 이상의 군주상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문무왕대에 명랑법사가 행하여 당나라를 물리쳤다고 하는 문두루비법은 『관정경』이라는 잡밀 계통의 경전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문두루라는 명칭이 『관정경』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의 경전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천왕의 호국역할을 강조한 『금강명경』의 영향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관정경』이 어느 시기에 신라에 전래되고 수용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명랑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가 귀국하면서 가져왔을 사료적 근거가 희박하다. 한편 진흥왕대에 이미 많은 경전이 수입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관정경』의 수입 여부도 6세기로 소급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진흥왕대에 이루어진 불교와 연관된 치국책이 상당부분 『관정경』의 내용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정경』은 신불보호 아래 개인의 기복은 물론, 국토 수호, 국토확장, 왕권강화와 같은 신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의 경전이다. 『관

66) 『관정경』 권6, 『총묘인연사방신주경』.

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의가 신라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진흥왕은 단지 그것을 정책에 적용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전륜성왕 사상과 같이 교리의 인물과 동일시하고, 불국토의 신라 설정과 신라 왕실을 찰제리종과 연관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성격의 『관정경』을 수용하고 있다. 6세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갈등이 팽배해있을 때이며 토착세력 또한 수그러진 시기가 아니었다. 때문에 『관정경』에서 설하고 있는 신불보호 아래 국토수호와 과거칠불, 전륜성왕 사상은 대단히 환영받을 수 있는 복합사상이었을 것이다. 진흥왕대에 행해진 인왕회, 팔관제회 등의 의식도 각 소의경전이 존재하고 있지만, 두 의식에 대한 사상이 집약된 『관정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진흥왕이 호불군주 일지라도 양무제처럼 스스로 강회를 열 정도의 불교교리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과 지식을 쌓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교학이 활발하게 꽃피던 동진에서 남조까지의 많은 경전의 번역과 다양한 학승들의 저작들이 찬술되었다. 다양한 저작 때문인지 잡밀계의 『관정경』 사경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8세기 일본 나라시대 귀신이 들어온다고 믿는 방향에 사찰을 지었던 호불군주 성무(聖武)천황이 직접 사경했다는 『관정경』과 동대사 사경소에는 다수의 『관정경』수법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정창원 문서에 전한다. 동아시아 고대국가가 『관정경』을 호국경전으로 여긴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각덕이나 명관과 같은 신라승은 양·진 교체라는 혼란시기를 경험한 후 신라에 맞는 신불보호의 『관정경』이라는 종합사상이 담긴 경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진흥왕이 펼친 불교 정책이 각 소의경전에 따랐다할지라도 『관정경』만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정경』은 선덕왕대의 명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6세기 진흥왕대에 승려와 사신의 교류를 통해 전래되고 수용되었으며, 진흥왕 개인의 불교관을 넘어 치국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灌頂經』, 『仁王經』, 『阿育王經』

『五臺山事蹟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續高僧傳』, 『海東高僧傳』

『出三藏記集』, 『歷代三寶紀』

『梁書』, 『南史』, 『破邪論』

2. 단행본

김종명,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한국학술정보, 2014.

신종원, 『신라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1998.

일 아, 『아소카』, 민족사, 2010.

종 석, 『밀교학 개론』, 운주사, 2000.

鎌田茂雄, 정수일 역, 『中國佛敎史』, 경서원, 1984.

松長有慶, 장익 역, 『밀교경전 성립사론』, 불광출판부, 1993.

下泉全曉, 『地藏菩薩』, 東京: 春秋社, 2015.

渡辺照宏, 한경수 역, 『불교사의 전개』, 불교시대사, 1992.

3. 연구 논문

김연민, 『신라 문무왕대 명랑의 밀교사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30, 2008.

박태화,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1965.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22, 2001.

서윤길, 『명랑법사와신인중』, 『한국밀교사상사』, 2006.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밀교』, 『역사와 현실』 63, 2007.

윤세원, 『신라 초기 불교의 정치사상』, 『신라문화』 48, 2016.

장 익, 『명랑의 문두루법과 진호국가밀교』, 『밀교학보』 16, 2015.

최병현, 『신라 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정치사상』, 『신라문화』 54, 2019.

■ 논문투고일 : 2020. 1. 12 ■ 심사완료일 : 2020. 1. 30 ■ 게재확정일 : 2020. 1. 30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of 6th Century Shilla to Abhseka Sutra

Lee, Kyong-ran*

This book is a study of when the “Abhseka Sutra,” a symbol of the patriotic martyrdom of Silla, was introduced. The “Abhseka Sutra” translated by Baek Sirimildara, a western district that crossed into Dongjin, is a comprehensive scripture of nature that covers all the problems facing Silla, such as protecting its territory, expanding its territory and strengthening its royal authority, as well as individual ups and down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renunciation.

It was thought to have been handed down by him because of his actions so far, but the rationale is not clear. King Jinheung is one of the most popular Buddhist monarchs following King Beopheung. So much so that a series of Buddhist policies that took place in the Jinheung Dynasty were due to individual Buddhist views, which influenced the political situation.

“Abhseka Sutra” was a complex idea that could be protected by God and Buddha and the past seven Buddha and the Cakravartin idea could be welcomed. Therefore, it is well considered that the doctrines presented in “Abhseka Sutra” ma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illa's policies. King Jinheung has gone beyond just applying it to his policies, identifying it as a person of doctrines like Ashoka and embracing the complex nature of “Abhseka Sutra” by linking the Buddhist kingdom's Silla establishment with the Silla royal family through the use of a lotus seat. In the 6th century, Silla was at a time when Goguryeo and Baekje were in conflict, and it was not when the royal authority dominated the tribal forces altogether. Thus, the nature of pure rain established by King Jinheung advocated Confucian monarchy. The interior, however, projects the image of Cakravartin, a Buddhist idealist and a strong king.

In addition, Cakravartin is a character that brings indigenous ideas, which are firmly established in Silla, into the category of Buddha's prestige. Each Buddhist policy carried out by King Jinheung even if the scriptures of the ox existed so, it is not as complex and comprehensive as Cakravartin.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bhseka Sutra” was introduced and accepted

* Pukyung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through the exchange of Buddhist monks and envoys to the 6th century Jinheung Dynasty, not by the MyengRang of the Sunduk Dynasty.

Keyword ● Abhseka Sutra, King Jinheung, Silla Buddhist policy, Past Seven Buddhas, Cakravartin